병리적 기호의 사회학

– 이상 소설 「翩翩會豕」의 서술 형식과 서사 구조 연구

김정관*

– 차 례 –

1. 시대의 병리와 영혼의 형식, 미적 모더니티

2. 멜랑콜리의 증후와 계열체적 서술 방식

3. 몽타주와 알레고리의 탐구 서사

4. 타락한 세계에서의 소설적 가치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부교수, kumkwann@hanmail.net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물신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분열된 근대 세계에서 소설적 가치를 창출한 이상 문학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로만스(Romance)가 전위(轉位)된 아이러니 양식의 탐구 서사’를 이상 소설의 기본형으로 파악하고, 로만스적 편력의 세 단계(갈등-투쟁-인지)에 해당되는 소설의 구성 단위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구조화된 계열체적 서술 방식과 알레고리적 서사 구성의 기능과 가치를 분석, 평가하였다.

「翟雋會豕」에서 알레고리 형식으로 나타나는 증후적 표현 기호와 은유적 · 환유적 연쇄의 계열체적 서술 방식은, 식민지 근대 사회를 지배한 ‘물신적 교환 가치’와 ‘존재의 물격화(物格化)’에 의해 억압되고 숨겨진 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미학적 모더니티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翟雋會豕」의 서사 구조는 이와 같은 서술적 층위의 표현 원리와 기표 연쇄의 탐색 과정을 포괄하면서 반복한다. 몽타주적 장면의 구성 단위들이 환유적 과정이나 은유적 과정의 기표 연쇄로 조립되어 트라우마의 사회적 콘텍스트를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몽타주적 기표 연쇄가 일정한 단위로 중층결정되게 하는 ‘지각 가능한 질서’가 로만스 양식의 탐구 서사라는 하부구조를 통해 창조된다.

주제어 : 교환가치, 로만스 양식, 알레고리, 계열체적 서술, 몽타주

1. 시대의 병리와 영혼의 형식, 미적 모더니티

사회 구조의 변동과 시대의 병리는 영혼의 성격을 바꾸고 문학의 형식과 기능에 변화를 준다.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사물화' 현상이 초래한 가치 붕괴의 사회가 '의미론적 양가성'과 '의식의 사물화'를 초래하고 서술통합체의 붕괴로 전이되는 현상[1]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물신화된 삶의 방식'과 '사물화된 문학의 표현 형식'과 '훼손된 영혼의 양태'가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의 범주'를 통하여 상동 관계를 형성한다[2]는 것을 통찰하게 한다. 교환가치 기호가 만연된 사물화 현상이 의식 세계는 물론 무의식의 영역까지 침투[3]하여 영혼과 외부 세계가 동시에 타락한, 총체적 가치 위기의 현실에서 소설은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골드만(Lucian Goldman)은 총체성이 상실된 세계에서 소설의 가치 추구의 방식이 놓여 있는 미학적 장르로서의 운명을 양가적이고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마치 화두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가 소설의 성격을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문제적 주인공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4]라고 했을 때, 주인공과 삶의 세계와 문학 형식 사이에는 역설적으로 상동적 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관계가 구조적으로는 닮아 있지만 역설적인 이유는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모두 타락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지만 각기 타락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에서 대립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인공의 타락이란 진정

1) 페터 지마, 『텍스트사회학이란 무엇인가』, 허창운 . 김태환 옮김(아르케, 2001), 86면.; 위르겐 슈람케, 『현대소설의 이론』, 원당희.박병화 옮김, 문예출판사, 1995, 124면 참조.

2) 루시앙 골드만,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옮김, 청하, 1984, 23면 참조.

3) 페터 지마, 앞의 책, 209면 참조. 페터 지마는 교환 법칙의 몰가치성, 가치의 무차별성이 무의식의 영역에 침투하여 악몽과 고통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카프카의 소설에서 발견하고 있다.

4) 루시앙 골드만, 앞의 책, 14면.

한 가치를 직접 추구하지 못하고 매개화된(간접화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인 바, 소설 속에서는 타락한 사회의 삶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면서도 사회에서 보았을 때에는 문제성을 품고 있는 주인공들이 "유별난 방식으로, 스스로 타락에 몸을 던져서 문제 제기적이며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추구하는"[5] 형태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교환가치의 매개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의 사물화 현상이 소설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물신성에 억압되어 일종의 "부재의 양태"로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소설 속에서 문제적 주인공이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재의 형식'[6]으로 '부재의 양태'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소설 속에서 문제적 인물이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를 전략으로 한 은유적 · 환유적 서술 방식을 통하여 가치 위기의 현실을 미메시스(mimesis)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치가 훼손된 부조리한 현실의 병리성을 비판하고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7]

대표작 「날개」의 서두에서부터 「龜龜會豕」, 「童骸」, 「終生記」를 거쳐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되어 반복적으로 암시되어 있듯이, 이상 문학의 본질을 조직하고 있는 방법적 정신이자 미학적 구성원리는 패러독스와 아이러니이다. 이를 중심으로 한 미학적 기능 범위는 은유적, 환유적 서술구조에 입각한 모순어법의 실현으로부터 과격한 메타

5) 루시앙 골드만, 『현대사회와 문화창작』, 천희상 옮김, 기린문화사, 1982, 115면.

6)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문학과 지성사, 1993), 21면 참조. 문학작품이 교환원리와 사물화로 인해 진정한 가치가 내재적인 차원으로 끌려 들어간 현실, 즉 '부재의 양태'를 보이는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를 바탕으로 해서 '현존'을 촉발시키는 미메시스적인 언어, 즉 미적 가상을 통해 가려진 진실을 형상화하는 역설적 의미 표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은유나 알레고리적 표현 기호가 여기에 속한다.

7) 김정관, 「김승옥 소설 '서울의 달빛 0장'의 심리기제와 미적 모더니티 연구」, 『인문과학』 제63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286면.; 문병호, 위의 책, 189면 참조. 여기에서 사용한 '미메시스(mimesis)' 개념은 합리화된 것으로 위장된 세계의 비합리성, 혹은 총체적 사물화로 억압되어 가려진 진실('부재의 양태')을 예술적 형상화('부재의 형식')를 통해 드러내는 미적 가상의 역설적 진리 추구 방식을 말한다.

포로 결합된 낯선 이미지의 알레고리적 세계를 탐색하는 증후적 기호의 서사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산 및 조직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상 소설은 (화폐를 매개로 한 사물화와 물신성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계에서 (계열체적 서술 방식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표상 기호를 통한) 역설적이고 모순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혹은 은폐된 진실)를 현현하는 서사 구조를 만들어 낸다.

분열된 세계에 살고 있는 "분열된 사유 주체는 분열된 내러티브를 생성할 것이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사회에 몸을 던져서 억압된 트라우마의 원초적 장면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와 시대가 은폐한 죄의 연관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분열되고 파편화된 소설의 표상 세계를 재구성하고, 혼란스럽게 표출되는 내적 독백의 의미를 중층결정할 수 있는 텍스트의 심층적 질서와 구성 원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을 구조화하고 있는 텍스트의 원형적 생산 패턴을 바탕으로 이상의 소설 세계를 통찰하면, '로만스(Romance)[9]적 양식을 원형으로 삼고, 분열된 주체가 표현하는 증후적 기호의 의미 연쇄를 구성 원리로 전개되는 탐구적 서사'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로만스에서 억압된 리비도를 탐구하기 위한 은유적 기호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요소는 '모험'과 '편력'이라는 서사 과정 속에 포함된 제의적 형식(갈등-투쟁-죽음과 인지, 혹은 소생)이고, 이런 패턴이 부조리와 아이러니로 충만된 현대사회에서 소설이라는 장르의

8) 박찬부, 『현대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267면.

9) 노드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옮김, 한길사, 1982, 170면, 260면, 334면 참조. 노드롭 프라이가 악몽 같은 부조리한 세계에서 주인공이 갈등을 겪고 희생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현대 모더니즘 소설의 구상을 "로만스적 역할의 패러디"라고 해석한 바 있듯이, '로만스(Romance)'는 편력을 통해 리비도(Libido)를 탐구함으로써 사회의 억압을 기묘하게 역설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을 갖는 장르로 파악되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 문명하의 외상적 경험에 신음하면서 상실된 리비도의 원초적 기억을 좇고 있는 이상 문학의 기원과 본질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세계로 전위되면 아이러니와 비극적 요소가 강화된, '로만스 형식의 패러디'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신화비평에 의하면 이 원리는 위험한 여행의 준비와 '갈등'을 나타내는 '아곤(agon)', 필사의 투쟁 과정, 혹은 투쟁과 죽음을 나태내는 '파토스(pathos)', 인지와 발견 혹은 소생을 나타내는 '아나그노리시스(anagonorisis)'로 구성되어 있다.[10] 이 세 단계는 모종의 문제로 잠재적 갈등을 겪던('아곤') 주인공이 외부 세계로 진입하여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 헤매이다 현실 원리에 부딪혀 파탄하면서('파토스') 역설적으로 진실을 인지('아나그노리시스')하는 이상 소설의 서사 구성과 유비적 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날개」는 유폐된 생활에 묻혀 있던 기능 상실자인 주인공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내적 갈등을 품고 있다가, 현실 세계에 진입하여 아내를 상품화시킨 사회의 타락한 욕망을 반복해서 모방함으로써 아내의 정체를 알아내고 절망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화폐 물신주의 사회의 교환 형식의 악마성을 깨닫게 되는 탐구적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童骸」는 애인의 배신을 의심하는 기능 상실자인 주인공이 어린아이처럼 귀엽고 청순하게 보이는 여인의 실체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한 절망하는 강박적 탐색 행위를 서사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작품 역시 서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고 경쟁하는 반복 충동에 의해 대상에 대한 탐색과 파탄, 그리고 인지의 연쇄 구성이 발견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텍스트 생성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가치 붕괴된 세계에서 상처받은 주체가 역설과 아이러니의 서술 방식을 통해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욕망을 표상하면서 전개되는 이상 소설의 특수성과 소설적 가치를 구명하기 위한 장르사적 통찰과 비평적 논점을 함께 제공한다. 이상 소설 속에서 나타난 서

10) 위의 책, 261면, 268면.

사 양식의 전위(轉位)적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중층구조는 텍스트의 생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여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소설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논문의 주제와 목적은 이 질문 속에 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소설을 통일하고 있는 원형적 구상 및 서사 패턴을 분석하여 그 미학적 기능 및 가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로만스가 전위된 아이러니 양식의 탐구 서사'를 이상 소설의 기본형으로 파악하고, 로만스적 편력의 세 단계(갈등-투쟁-인지 및 소생)에 해당되는 소설의 구성 단위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구조화된 계열체적 서술 방식과 알레고리적 서사 구성의 미학적 모더니티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분석, 평가할 것이다. 이 논문이 이상 소설의 기호 발생 원리와 기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소설사회학적 가치를 구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가장 난해하고 실험성이 강한 서술 형식[11] 속에서 현실 사회의 모순 구조를 통찰해 낸 「翼龍會豕」를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 동안 「翼龍會豕」에 나타난 근대적 물신성과 미적 모더니티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다양한 시각과 논점에서 관심을 보여왔다. 이 연구들을 통해, '화폐 물신성과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 현상'(김대웅, 김성수, 송민호, 채호석)[12], '몽타주와 알레고리의 기호 미학과 문

11) 정희모, 「지주회시에 대한 敍事構造的 分析 硏究」, 『국어교육』 제92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435면 참조.

12) 김대웅, 「이상 소설 '지주회시(翼龍會豕)'에 나타난 자본의 문제」, 『어문론총』 제8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163-187면.; 김성수, 「이상 문학에 나타난 화폐 물신성과 감각의 모더니티」, 『국제어문』 제46집, 국제어문학회, 2009, 191-220면.; 송민호, 「이상 문학에 나타난 '화폐'와 글쓰기」, 『한국학보』 제28권 제2호 통권 107호, 일지사, 2002, 132-167면.; 채호석, 「1930년대 소설에서의 돈과 육체」, 『현대문학의 연구』 3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25-151면.

화적 모더니티'(김미영, 박선영)[13], '멜랑콜리의 증후와 알레고리의 표현 기제'(이정석, 박선영)[14], '근대성과 여성의 기호 사회학'(이재복)[15], '사회구조의 모순과 서사구조의 파괴'(정희모)[16] 등, 유용한 주제의식과 연구방법의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계는 사회의 모순 구조에 대한 문학 텍스트의 대응과 의미 생산 과정이 서술적 · 서사적 구조의 층위에서 충분히 분석되고 해명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연구 결과의 추상성이었다. 예컨대 '창부'라는 존재를 통해 식민지 근대성의 알레고리를 표상한 이상 소설의 가치를 통찰하고 있는 박선영과 이재복의 연구는 사회학적 문맥으로 문학작품의 표현 현상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근대성의 알레고리(혹은 메타포)가 서술 방식 및 서사구조를 통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과 해명이 없어, 사회적 현상과 소설의 내용을 매개 없이 연결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돈과 육체가 결합된 물신화 현상에 대응하는 소설의 전략'을 대상으로 한 채호석의 연구 또한 텍스트의 주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제모순이 어떻게 문학의 형식으로 표현되는가를 밝히지 못하여 소설의 가시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의미 해석에 머물었다. 최근의 것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상상력'을 검토하고자 했던 김대웅의 논문은 실증적 연구의 강점을 보였지만, 텍스트 생산 과정에 대한 서술 및 서사 층위의 분석이 미흡하여 내용의 사회학이 갖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들은

13) 김미영, 「이상의 '지주회시' 연구」, 『인문논총』 제65집, 인문학연구원, 2011, 385-418면.; 박선영, 「알레고리로 읽는 이상 소설」, 『이상리뷰』 제4호, 이상문학회, 2005, 141-172면.

14) 이정석, 「이상 문학의 세계감」, 『반교문학회』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347-461면.; 박선영, 위의 논문, 141-172면.

15) 이재복, 「이상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된 창부의 몸과 근대성의 메타포」, 『이상리뷰』 제2호, 이상문학회, 2003, 113-141면.

16) 정희모, 앞의 논문, 433-454면.

대부분 「龍龍會豕」의 핵심 주제를 함축하는 위악적인 결말구조가 화폐경제 체제의 모순을 그려내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라는 것을 추론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텍스트 전체의 구조화 과정에서 몽타주적 장면들이 중층결정되어서 나타난 상징적 현현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단일한 시각의 연구 방법론이 보이는 추상성의 문제는 텍스트의 의미 생산 원리를 해명하지 않은 형식 분석의 논문에서도 발견된다. 시간과 시점이 분열된 「龍龍會豕」의 서사구조에 주목한 정희모의 논문은 사회의 모순이 문학 형식을 통해 담지되는 텍스트의 현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지만, 형식 파괴를 통해 소설적 진실을 드러내는 이상 문학의 의미 생성 원리 혹은 미학적 구성의 원형을 간파하지는 못하였다. 연구자가 「龍龍會豕」는 서사 형식을 통해 탈근대적, 아방가르드적 모습을 보이고 이후 제작된 「童骸」나 「失花」는 오히려 근대적 가치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단일한 작품의 형식에 편중한 연구방법의 주관성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참고하여, 이상 소설을 통일하고 있는 원형적 구상 및 서사 패턴을 표현 양식 및 서술 통사론적 층위에서 기호 분석하여 그 미학적 기능 및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보다 통합적인 연구방법을 마련하였다.

2. 멜랑콜리의 증후와 계열체적 서술 방식

페터 지마(Peter V. Zima)는 문학의 서술구조와 사회 변동 사이에 상호관계가 존재하며, 교환원리가 지배하는 가치 붕괴의 위기는 의미론적 양가성의 매개 범주를 형성하여 문학작품 속에서 서술통합체의

붕괴로 이어진다[17]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문학 텍스트의 사회적 · 역사적 의미는 어떤 개념체계 속에 있다기보다는 특정 시대의 가치 체계의 위기와의 대결에서 비롯된 언어적 · 문체적 특수성 속에 존재한다. 문제적 주인공이 '부재의 언어 형식'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가 '부재의 양태'를 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표현함으로써 가치의 위기를 초래한 사회가 숨기는 것을 말하게 만드는 것이 소설적 진실의 표명 원리라면, 「龜龝會豕」에서 알레고리 형식으로 나타나는 증후적 표현 기호와 은유적 · 환유적 연쇄의 계열체적 서술 방식은 식민지 근대 사회를 지배한 물신적 교환가치와 존재의 물격화에 의해 억압되고 숨겨진 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미학적 모더니티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날밤에그의안해가층계에서굴러떨어지고—공연히내일일을글탄말라고어느눈치빠른어른이타일러놓으셨다.옳고말고다.그는하루치씩만잔득산(生)다.이런복음에곱신히그는덩어리(속지말라)처럼말(言)이없다.잔뜩산다.아내에게무엇을물어보리요?그러니까아내는대답할일이생기지않고따라서부부는식물처럼조용하다.그래서그런지그는이귤궤짝만한방안에무슨연줄로언제부터이렇게있게되었는지도무지기억에없다.오늘다음에오늘이있는것.내일조금전에오늘이있는것.이런것은영따지지않기로하고그저얼마든지오늘오늘오늘할일없이눈가린마차말의동강난視야다.눈을뜬다.이번에는생시가보인다.꿈에는생시를꾸고생시에는꿈을꿈꾸고어느것이나재미있다.오후네시.옮겨앉은아침—여기가아침이냐.날마다다.그러나물론그는한번씩한번씩이다.(어떤거대한모체가나를여기다갖다버렸나)—그저한없

17) 페터 지마, 앞의 책, 86면, 155면 참조.

이게으른것—사람노릇을하는체대체어디얼마나기껏게으를수있나좀해보자.—게으르자—그저한없이게으르자,(「翩翩會豕」, 297면)[18]

또거미.아내는꼭거미.라고그는믿는다.저것이어서도로환투를하여서거미형상을나타내었으면—그러나거미를총으로쏘아죽였다는이야기는들은일이없다.보통발로밟아죽이는데신발은커녕일어나기도싫다.그러니까마찬가지다.이방에그외에또생각하여보면—맥이뼈를디디는것이빤이보이고,요밖으로내어놓은팔뚝이밴댕이처럼꼬스르하다—이방이그냥거민게다,그는거미속에가넓적하게드러누워있는게다.거미내음새다.이후덥지근한내음새는아하거미내음새다.이방안이거미노릇을하느라풍기는흉악한내음새에틀림없다.그래도그는안해가거미인것을잘알고있다.가만둔다.그리고기껏게을러서아내—人거미—로하여금육체의자리—(惑,틈)을주지않게한다.(「翩翩會豕」, 298면)

「翩翩會豕」에서 띄어쓰기를 무시한 채, 화자와 주인공의 시점이 혼융된 상태에서 단속적으로 연쇄되는 내적 독백[19]은 절망적인 상실감과 권태에 사로잡힌 멜랑콜리(melancholy) 환자의 증후적 언어 양태를 방불케 한다. 이는 가치 붕괴된 세계로부터 상처받은 존재의 회한이 표상된 고통 어린 투사(投射)로서,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이 파편

18) 이상, 「翩翩會豕」,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4. 앞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翩翩會豕」의 인용은 소설명과 소설이 실린 책의 면수만을 밝히는 것으로 한다.

19) 「翩翩會豕」의 첫 장면부터 나타나는 주인공의 몽환적인 의식세계는 띄어쓰기의 무시로 의미소가 상실된 파편화된 문장들의 병치와 무질서한 내적 독백이 뱉어 내는 증후적 서술 양태를 통해, 교환원리와 사물화를 매개로 가치 질서가 붕괴된 외부세계가 영혼의 영역에 침투한 흔적을 환유적으로 기호화한다.(위르겐 슈람케, 앞의 책, 124면 참조.)

화된 음소들의 몽타주적 기호[20]와 '거미'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나타나서 은유 및 환유의 기표 연쇄를 이어가는 언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모더니티가 일소한 초월적 가치들을 찾을 수 없는 우울자가 "부재하는 현존"[21]이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사물화가 진행된 대상의 성격을 욕망의 기표 이동[22]을 통해 반복해서 표현하는 우회적 탐색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권태와 무기능으로 대변되는 이상 문학의 멜랑콜리는 소설의 구조 속에서 훼손된 대상의 출몰(이는 보통 창부로서의 아내의 출분과 귀가로 반복된다)에 반응하고, 급기야 그 정체를 찾아 나서는 패러독스(paradox)의 심리기제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언어심리의 기호론적 측면에서 패러독스는 의미의 역설적인 양면성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는, 즉 하나의 기표에 대한 의미의 고정점을 정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변환 운동을 의미한다. 패러독스와 관련된 기호운동의 발생론적 원점에는, 최초에 잃어버린 욕망의 원형을 언어기호를 통해서 복원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숙명적 결핍성이 전제되어 있다. 무의식의 본질을 언어구조로 파악했을 때, 정체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기표의 연쇄적인 의미 전환은 근원적인 욕망이 억압되어 나타나는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된다.[23] 언어 형태와 억압과 결핍에

20) 박선영, 앞의 논문, 143면 참조. 이 논문에서는 「龜龜會豕」의 띄어쓰기를 무시한 내적 독백의 서술 방식을 알레고리적 기획으로 해석하고 있다.

21)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민음사, 2010, 237면.

22) 이재복, 앞의 논문, 126면 참조. 이재복은 이상 소설의 탐색구조와 서술 방식을, 부재 또는 결핍을 상기시키는 욕망의 대상을 향한 환유적 기호의 대체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23)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옮김, 『자크 라캉』(문예출판사, 1994), 50-94면 참조. 라캉은 언어구조와 무의식의 표현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성을 발견하여, 프로이트가 꿈 작용의 기제로 생각한 '압축'과 '전치'를 언어작용에서의 '은유'와 '환유'에 상당한 것으로 통찰한다. 라캉의 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적 욕망은 하나의 모습을 비슷한 다른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으며, 결국 한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체한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은 무의식이 언어의 산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유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2차 억압 과정과 관계한 무의식은, 라캉식으로 말하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섰을 때, '욕망이 억압되어 나타나는 결핍에

대한 반응 사이에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독스의 언어심리가 소설에서는 여성에 대한 집요한 의심과 탐색으로 전이됨으로써 원초적인 대상을 상실한 주체의 욕망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우울자의 소모적 기호 활동을 통해 반복된다. 그러나, 아무리 벗겨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24]을 대상으로 강박적 탐색을 펼치는 욕망의 추구 과정은, 또한 그것이 존재의 가치를 훼손하고 물신화시킨 근대적 세계의 교환원리를 환유적으로 미메시스한 알레고리적 기호 활동이라는 데[25]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여왕봉'이나 '童骸', 혹은 '거미'로 변신한 '창부의 몸'을 교환가치에 의한 물신화와 사물화를 매개로 총체적 가치 붕괴를 초래한 '근대성에 대한 메타포'[26]로 투시함으로써, 이상 문학은 주관의 객관화를 통해 사회적 콘텍스트를 묘출하는 소설적 가치를 드러낸다.

「翼龍會豕」의 첫 장면은 "아내는 꼭 거미"(298면)라는 충격적 메타포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 말은 아내의 본질, 혹은 정체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명칭이 아니고 아내를 알아내기 위한 가설적인 기표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의 단초인 기표가 만들어지게 된 동

대한 반응'으로 설명되므로 그는 언어 형태와 억압에 대한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라캉의 이론은, 의식적인 언어 속에 이미 무의식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의식적인 창작 과정을 겪은 문학작품 속에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분석해낼 수 있는 정신분석학적 문예비평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24) 이상, 「失花」,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3』(문학사상사, 1995), 369면.

25) 가치 상실의 세계에서 병든 주체가 앓는 멜랑콜리(우울증)의 세계는 원초적으로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부재하는 대상을 환유적 혹은 제유적으로 표상하는 파편화된 기표를 찾아 헤매이는 욕망의 패러독스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처럼 파편화된 기표의 의미 변환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가치 붕괴의 알레고리적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실제적인 대응물을 갖고 있다(김홍중, 앞의 책, 233면 참조). 그것은 골드만과 아도르노와 페터 지마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상품 물신성의 기초인 교환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세계인 것이다. 모더니즘 소설에서 발견되는 알레고리의 내적 형식과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성에 대한 분석 간에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관계가 발견된다. 상품과 마찬가지로 알레고리는 사물을 인격화시키며, 인간은 물격화시킨다(프랑코 모레티, 『근대의 서사시』,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1, 131면).

26) 이재복, 앞의 논문, 117면.

기는 다른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아내의 출분(出奔)과 관련된다. 권태에 찌들어 기진맥진한 반의식 속에서도 서술의 행간에서 주인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내'의 사라짐과 나타남, 혹은 그러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기억의 현장이다.

> 거미의어렵디어려운발들이사라지지않는데들은크리스마스라는한마디는참서늘하다.그가어쩌다가그의아내와부부가되어버렸나.(…)—그들이부부노릇을한지一년반쯤된때—아내는갔다.그는아내가왜갔나를알수없었다.그까닭에도저히아내를찾을길이없었다.그런데아내는왔다.그는왜왔는지알았다.지금그는아내가왜안가는지를알고있다.이것은분명히왜갔는지모르게아내가가버릴징조에틀림없다.(「寵竈會豕」, 299면)

> 아내가또온것은서너달전이다.와서그를먹여살리겠다는것이었다.(「寵竈會豕」, 301면)

> 인생에대한끝없는주저를잔뜩지니고인천서돌아온그의방에서는아내의자취를찾을길이없었다.(「寵竈會豕」, 304면)

> 여름이그가땀흘리는동안에가고—그러나그의땀이걷히기전에왕복옆서모양으로아내가초조히돌아왔다.낡은잡지속에섞여서배고파하는그를먹여살리겠다는것이다.왕복옆서—없어진半—눈을감고아내의살에서허다한指紋내음새를맡았다.(「寵竈會豕」, 304면)

> 그러나웬일일일까아내는방에서기다리고있지않았다.아하—

> 그날이왔구나,왜갔는지모르느데가버리는날—하필?그러나(왜왔는지알기전에)왜갔는지모르고지내는중에너는또오려느냐—(「竄竈會豕」, 309면)

정신분석학은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이 위장된 형태로 끊임없이 회귀하는 현상을 '반복 강박증'이라고 부른다. 길지 않은 단편 소설 속에서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내의 '출분과 귀가'의 장면은 그 자체가 우울자가 트라우마의 원인에 반응하는 증후적 재현 표상이며 욕망의 기표로서, 계속해서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아내라는 존재를 의심하고 탐색하는 강박적 관념 전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서두에서 아내를 '거미'로 치환한 심리적 이유를 말해 준다. 기표는 전이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의미를 만들고 과거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소설의 서두에서 "또거미.아내는거미다.라고그는믿는다."라는 문장에서 시작된 내적 독백의 흐름 속에서 거미라는 기표는 환유적 기호 연쇄를 통해 몇 번의 의미 전환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 맥락은 출분해서 지문(指紋)과 돈 냄새를 묻혀 돌아오는(「竄竈會豕」, 304면) 아내에 대한 원망과 울분과 의심이 관념적 표상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이미지의 다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미-아내-거미-환투-거미 형상-거미를 총으로 쏘아 죽여였다는 이야기-발로 밟아 죽이는 데 신발 신기 싫음-맥이 뼈를 디디는 야윔-방이 거미다-내가 거미 속에 누워 있음-거미 내음새-흉악한 내음새-안해가 거미다-게으름-人거미(「竄竈會豕」, 298면 참조)

그러나 아내의 출분 장면을 떠올리자 주인공은 게으른 몸을 일으켜 "첩첩이 닫아버린"(298면) 거미의 뱃속에서 나서서 "공기 사나운"(299면) 현실이 기다리는 물신화된 생존의 복마전 속으로 위험한 탐색의 편력을 시작한다.

> 수염을깎고첩첩이닫어버린번지에서나섰다.(…)어디로가볼까?(A취인점)(생각나는명함)(吳군)(자랑마라)(二十四日날월급이든가)(…)이속에는무엇이있나.공기?사나운공기리라.살을저미는-보통공기가아니었다.(「寵寵會豕」, 299면)

그 속에는 출분했다 돌아온 아내를 저당잡고 "百원"의 돈을 차용해 준 뚱뚱한 "R카페의 주인"(301면)과 같은 같은 포주들이 있고, 그 돈을 석 달만에 다섯 배로 불려준다고 속이고 가로챈 친구 "吳"(299면)와 같은 속물과 사기꾼들이 잠복해 있고, 친구 '吳'와 서로를 착취하는 사이인 "마유미"(306면)류의 살찐 매춘부들이 살고 있고, 여급(아내)을 희롱하고 층계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양돼지"(310면) 같은 자본가(A취인점 전무)들이 득실거린다.

「寵寵會豕」는 그 원형적 심층으로부터, 주인공이 변신한 괴물과 적대자들이 득실거리는 우의적(마술적) 세계를 편력함으로써 집단무의식의 욕망을 탐구하는 로만스 양식의 서사가 아이러니의 현실 세계로 치환된 모습을 띠게 된다. 아곤(agon:갈등, 모험의 준비)에서 파토스(pathos: 탐험과 투쟁 및 죽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성적 현실을 경험하는 주인공의 의식을 통하여, 합리성을 가장한 근대 세계의 비합리성이 현실의 초현실성이라는 공통된 맥락에 의해 로만스적 양식의 서사 구조를 차이를 가지며 반복하는 알레고리적 기능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27] 주인공이 폐쇄된 자의식의 공간에서 개방된 현실의 공간으로 이행하여 물신적 욕망에 충만한 존재들을 맞닥뜨리면서 경험하는 충격적인 현실의 장면들은 이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 속에서 트라우마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억압된 무의식의 재현 표상인 '거미'라는 이미지를 향해 리비도의 카텍시스[28]가 강렬하게 집중되면서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기표의 의미 변환이 연쇄적으로 발현된다. 이것이 로만스의 층위에서는 탐색과 모험의 편력 과정으로, 아이러니의 층위에서는 무의식이 회귀하여 벌이는 알레고리적 기호의 연쇄적 표상 과정으로, 서사 구조의 층위에서는 '부재의 양식'을 통하여 상실된 가치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소설적 역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사물화' 현상이 문화적 약호[29]를 만들어 생활 세계 및 심리 세계까지 침투하여 진행되는 가치 붕괴의 사회 구조와 상응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상상계적 밀실에서 상징계적 현실로 나온 주인공이 친구 '吳'를 만나 경험하는 물신적 현상들이 감추어진 기억을 자극하자마자, '거미'라는 재현 표상은 강박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계열체적 연상 작용에 의해서 기표의 의미 변화를 이어가는 낯선 서술 양태를 표출한다.

---

27) 이런 의미에서 이상 소설의 본질을 알레고리적 표현 방식을 통한 사회 비판으로 해석한 연구(박선영, 앞의 논문, 142-145면 참조)는, 로만스적 세계가 패러디되면서 근대 세계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용한다는 본고의 논의와 부분과 전체, 표층과 심층, 혹은 표현 방식과 의미구조의 관계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8) 카텍시스(Kathexis)는 리비도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하여 발현되는 것을 말한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인간의 현존재의 사회조직 밑에는 그 구조에 알맞은 리비도의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본능 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허버트 마르쿠제, 김인환 옮김, 『에로스와 문명』(나남, 1989), 201-202면 참조).

29) 페터 지마, 앞의 책, 131면.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매개의 문제를 기호학적으로 논의하면서, '교환가치'를 본질로 한 상품의 물신성이 문화적 약호를 형성할 정도로 사물화 현상은 현대사회의 토대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까지 침투하여 '교환가치 기호'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 공기?사나운공기리라.살을저미는-과연보통공기가아니었다.눈에핏줄-새빩갛게달은전화-그의허섭수룩한몸은금시에타죽을것같았다.吳는어느회전의자에병마개모양으로명쳐있었다.꿈과같은일이다.오는장부를뒤져주소씨명을차곡차곡써내려가면서미남자인채로생동생동(살고)있었다.調査部라는패가붙은방하나를독차지하고방사벽에다가는빈틈없이方眼지에그린그림아닌그림을발라놓았다.「저런걸많이연구하면대강은짐작이나스렸다.」「도통하면돈이돈같지않아지느니」「돈같지않으면그럼方眼지같은가」「方眼지?」「그래도통은?」「흐흠—나도도로그림이그리고싶어지데」(…)吳는완전히吳자신을활활열어젖혀놓은모양이었다.흡사그가吳앞에서나세상앞에서나그자신을첩첩이닫고있듯이.오냐왜그러니나는거미다.연필처럼야위어가는것—피가나지않는혈관—생각하지않고없어지지않는머리—칵막힌머리—코없는생각—거미거미속에서안나오는것—내다보지않는것—취하는것—정신없는것—房—버선처럼생긴房이었다.아내였다.거미라는탓이었다.(「寵壟會豕」, 300면)

'황금광'의 모습으로 변모한 친구 '吳'에게서 받은 충격을 "꿈과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물신화된 사회의 초현실적 이미지가 꿈의 표상처럼 트라우마를 두드리자 주인공은 '吳'와 자신을 비교하고, 과거 아내를 카페에 저당 잡히고 빌린 돈을 갈취해간 '吳'의 모습을 떠올리며 강박적으로 과격한 관념 전이를 시작한다. "아내는 꼭 거미다"(297면)라는 메타포가 환유적 연상에 의해 "오냐 나는 거미다"(300면)라는 반동형성으로 치환되고, 연필처럼 야위어가는 아내를 떠올리며, 아내를 빨아 먹은 돈을 '吳'에게 사기당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학적 관념들이 투사되어 "칵막힌 머리", "코 없는 생각"을 형상

화하고, 이윽고 '아내'가 욕망의 중심 기표로서 등장하여 '거미'와 연결되면서 양가성을 띤 트라우마의 원인으로 대상화된다. 이 서술 장면에서 잠재적이나마 '거미'라는 기표를 매개로 '나'와 '아내'가 아날로지를 형성하는 중층적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서술적 층위에서 발견되는 환유적 연상에 의한 기표의 이동이 서사 구성의 층위에서는 장면 간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난다. '吳'와 만나는 장면은 환유적 연쇄를 인과로 'R카페 뚱뚱이 사장'을 조우하는 장면과 이어지고, 뚱뚱이 사장 앞에서 아내를 담보로 맡기고 차용증서에 인준했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오르자 주인공의 내면에서는 다시 한번 "거미"의 연상이 멜랑콜리 환자의 독백을 통해 투영된다. 이처럼 계열체적 서술의 기표 활동은 반드시 주체에게 상처를 준 기억을 전제로 하여 증후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뚱뚱한신사는바로그의아내가다니고있는카페R회관주인이었다.아내가또온것은서너달전이다.와서그를먹여살리겠다는것이었다.빚「百圓」을얻어쓸때그는아내를앞세우고이뚱뚱이보는데타원형도장을찍었다.그때유까다입고내려다보던눈에서느낀굴욕을오늘이라고잊었을까.(「龍龍會豕」, 301면)

> 거미—분명히그자신이거미였다.물뿌리처럼야외들어가는아내를빨아먹는거미가너자신인것을깨달아라.내가거미다.비린내나는입이다.아니아내는그럼그에게서아무것도안빨아먹느냐.보렴—이파랗게질린수염자국—퀭한눈—늘씬하게만연되나마나하는형영없는營養을—보아라.아내가아내다.아내아닐수있으랴.거미와거미와거미냐.서로빨아먹느냐.어디로가나.마주야웨는까닭은무엇인가.(「龍龍會豕」, 301면)

'카페 R회관 주인'을 만나서 촉발된 언술 형식은 모든 인간관계가 물신적 교환관계의 먹이사슬 속에서 그로테스크하게 변질되는 상황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 은유 및 환유적 전이로 연쇄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이면으로 사라지고 화폐를 매개로 인간이 인간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질서의 악마적 현실이 서로가 서로의 피를 빨아먹는 거미의 속성을 통해 전경화되어 있다.[30] 화폐를 둘러싼 교환가치의 원리에 물들어 있는 '아내'나 주위의 속물들뿐만 아니라 여급인 아내의 화대를 중간착취하여 '吳'에게 사기당한 주인공 자신도 바로 거미임을 깨닫는 것은 이 작품의 중요한 통찰 중의 하나이다.

이윽고 주인공은 '吳'와 '마유미'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 착취의 관계를 목도하고, 여급인 아내가 자신을 희롱하는 손님에게 '양돼지'라고 했다가 발에 차여 층계에서 굴러떨어진 사건을 통해 화폐가 삶 전체에 매개되어 관계의 질서를 뒤바꾸고 수시로 결정하는 교환 형식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 돈이살을파고들어가서—고놈이아내의정기를속속들이빨아내이나보다.아—거미—잊어버렸던거미—돈도거미—그러나눈앞에있는너무나튼튼한거미—너무튼튼하지않으냐.(「龍龍會豕」, 313면)

> 공기는제대로썩어들어가는지쉬적지근하여.또—과연거미다.(환투)—(…).거미내음새는—(…)새큼한지폐내음새가참그윽할뿐이었다.요새큼한내음새—.(…)거미—(…)거미는나밖에없다.보아라.지금이거미의끈적근적한촉수가어디로물려가고있나

30) 김정관, 「이상 소설의 사회성과 서사 구성 원리」, 앞의 논문, 58면.

(「龜龝會豕」, 313면)

노한촉수—마유미—吳의자신있는계집—그나풀—허전한것—수단은없다.—손에쥐인二十원—마유미—十원은술먹고十원은팁으로주고그래서마유미가응하지않가든예이양돼지라고그래버리지.(「龜龝會豕」, 313-314면)

결국 '거미'라는 메타포를 대상으로 아내를 훼손시킨 원초적 장면을 확인하려는 주인공의 반복 행위는 화폐의 교환원리가 매개된 가치붕괴의 현실을 표상하려는 텍스트의 무의식과 환유적 아날로지를 형성함으로써, 돈의 흐름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부유하는[31] 상처 입은 기호의 서술 양태[32]를 통해 물화된 세계의 본질 구조를 알레고리적으로 투사한다.

3. 몽타주와 알레고리의 탐구 서사

「龜龝會豕」의 서사 구조는 이와 같은 서술적 층위의 표현 원리와 기호론적 탐색 과정을 포괄하면서 환유적으로 반복한다. 기표의 변이 과정을 통해 상실된 대상을 찾아 헤매는 서술 형식의 심리기제와, 몽타주적 장면의 병치와 교유(交喩)를 통해 화폐의 물신성에 타락해 가는 근대 세계를 표상하는 텍스트의 서사적 구상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31)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2008, 155면.

32) 이는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가 심화시킨 의미론적 '양가성'에 대한 문학 텍스트의 반응으로서, 기호의 인과적 맥락을 뒤흔들고 의미를 교란시키는 계열체적 서술 양태를 말한다.

「龍龍會豕」의 서사를 심층에서 이끄는 재현 표상의 세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투시하면, 계열체적 서술 방식으로 표현된 내적 독백이나 증후적 장면들이 몽타주적 구성 단위를 형성하고, 몽타주적 구성 단위들이 환유적 과정이나 은유적 과정의 기표 연쇄로 조립되어 트라우마의 사회적 콘텍스트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의 무의식을 읽게 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몽타주적 장면들을, '로만스(Romznce) 양식의 서사 단위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나누고 텍스트의 내용 전개에 따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부

아내의 출분과 트라우마의 회귀: 갈등(agon)

① 부부는 식물처럼 조용하다. 이 귤궤짝만한 방안에 무슨 연줄로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기억에 없다.(297면 1행-18행) // ② 아내는 거미다. 이 방이 거미고 그는 거미 속에 드러누워 있다. 흉악한 거미 내음새가 난다.(298면 1행-10행) // ③ 방 밖에서 아내가 부스럭거린다. 아내는 남편의 게으름에 놀라며 외풍조차 가려주지 못하는 남편의 무기능을 탓하다가 크리스마스니 수염을 깍으라고 한다.(298면 11행-26행) // ④ 크리스마스라는 아내의 목소리와 아내가 환투한 거미의 발들이 오버랩되면서 아내의 출분과 귀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299면 1행-11행)

상처 입은 기호의 탐구 과정: 투쟁과 파멸(pathos)

⑤ 주인공은 집을 나와 친구 吳의 사물실을 찾아간다. 吳의 물신적 현실주의에 충격을 받으며, 그와 자신의 자폐적 생활을 비교하고 거미를 떠올리며 내적 독백을 한다. “나는거미다(…)-아내였다-거미라는 탓이었다.”(299면 12행-230면 13행) // ⑥ 거만한 R 카페의 뚱뚱이 주인을 만나 서너 달 전 출분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저당 잡히고 돈 백 원을 얻어 쓴 치욕적인 장면을 기억해 내고는 거미를 떠올리며 내적 독백을 한다. “거미-분명히그자신이거미였다.(…)-내가거미다.(…)-서로빨아먹느냐”(300면 14행-301면 16행) // ⑦ 거미라는 기표에서 말라가는 아내를 연상하고 자폐적인 반동심리를 투사한다. “금긋듯아내는작아들어갔다.(…)-독한거미(…)-생명의뚜껑을덮었다.”(301면 17행-302면 5행) // ⑧ 주인공은 吳와 함께 그의 사무실을 나와 차를 마신다. 吳와 R 카페의 뚱뚱이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한 거래 관계임을 알고, 지난 봄 아내를 저당 잡히고 R 카페의 뚱뚱이 주인에게서 차용한 돈을 사기해 간 ‘吳’에 대한 기억이 행간을 스친다. (“돈이었다.사람을속였단다.”) 금시계와 보석으로 치장한 吳의 속물적 모습과 언변을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자신의 형언 안 되는 심리에 스스로 놀란다.(302면 6행-24행) // ⑨ 미술가를 꿈꾸었다가 포기했던 吳와 자신의 청년 시절을 떠올린다.(302면 25행-303면 9행) // ⑩ 지난 봄 인천에서 사무실을 낸 吳와 만난 일을 회상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일시일각 변하는 吳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303면 9행-304면 5행) // ⑪ 인천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여름에 다시 귀가했다. 돌아온 아내를 저

당 잡히고 R 카페 뚱뚱이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치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그 백 원을 吳에게 사기당한 일을 연계해서 회상한다.(304면 5행-22행) // ⑫ 吳가 경성으로 와서 사무실을 내었다. 돈 백 원을 吳에게 사기당한 일을 행간에서 떠올린다.(304면 23행-305면 6행)

2부

⑬ 주인공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변해 버린 吳와 술을 먹는다. 동일하게 상품화된 여급들의 모습을 보고 여급인 아내를 생각하다 吳가 상품화시켜 착취하고 있는 양돼지 마유미를 만난다. 吳는 마유미를 빨아먹는 거미이다. 주인공은 吳가 착취하는 마유미를 부러운 듯이 살피다가 풍만한 마유미와 말라깽이 아내를 비교하여 연상한다. 강력한 욕망을 보이는 吳와 기능 상실자인 자신을 비교하다가 자폐와 우울증세가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305면 7행-307면 17행) // ⑭ 마유미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마유미는 吳와 자신의 상호 착취 관계를 토로하고 吳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끄나풀이라고 부른다. “저를빨아먹는거미를제손으로기르는세음이지요(…)즈이가돼려거민가싶습니다.”(307면 18행-308면 12행) // ⑮ 아내의 양말 사이에서 밤마다 지폐가 나왔던 장면을 회상한다. 거미를 기표로 내적 독백이 진행된다. “돈이살을파고들어가서(…)-거미(…)-돈도 거미”(308면 13행-22행) // ⑯ 새벽 두 시에 吳와 헤어져 집으로 가니 아내가 없다. R 카페로 아내를 찾으러 가서 아내가 양돼지 같은 손님에게 걷어차여 계단에서 굴러떨

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308면 23행-25행) // ⑰ 아내의 입장과 손님의 입장이 혼동된 자조적이고 자학적인 의식의 흐름이 내적 독백으로 진행된다. "나는대체누구의편을들고있는세음니냐(…)-아프다-아프다"(308면 25행-310면 12행) // ⑱ 경찰서 숙지실에서 R 카패 주인이 아내를 저당잡고 빌려준 돈을 상기시키며 위협하고, R 카페 주인에게 빌린 돈을 사기해 간 吳가 이를 거들며 화해를 종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주인공은 백 원을 석 달만에 오백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던 吳의 사기극을 떠올리며 아내와 경찰서를 나와 귀가한다.(310면 13행-311면 22행) // ⑲ 아내와 집으로 와 피곤한 몸을 눕혀 잠을 자며, "정말양돼지는누구냐"라고 자신에게 묻고, "그냥기가막혀버렸던것이다"라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충격을 내뱉는다. 아내는 아침에 다시 경찰서로 불려 간다.(311면 23행-312면 10행) // ⑳ 오후 두 시에 경찰서에서 돌아온 아내는 화해를 대가로 십원짜리 지폐 두 장을 받아 와 해죽거린다. 주인공은 자신을 배신한 吳와 R 카페 주인과 아내를 걷어찬 양돼지 A 취인점 전무가 화폐를 매개로 얽힌 이윤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이 "잔인한'관계'를가지고담벼락을스며"드는 무서운 현상을 실감한다. 증후적 관념의 이미지들이 환유와 은유의 기표 연쇄로 이어진다. "二十원짜리-二百여명-칠면조-햄(…)-양돼지(…)뼈다귀-산채썩어들어가는그"(312면 11행-313면 11행)

원초적 장면 혹은 주체의 타락과 진실의 현현:
인지와 발견(anagnorisis)

㉑ 주인공은 아내가 받아 온 이십 원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서서 거미를 기표로 강박적인 관념 전이를 일으키며 마유미를 찾아간다. 그 도중에 吳와 뚱뚱이 전무의 타락한 욕망을 모방하여, 화폐 물신주의가 만들어 놓은 부조리한 관계의 희극을 머릿속에 장면화한다.(313면 11행-314면 6행)

「龍龍會豕」는 단자화된 문자들의 집산에서부터 은유 및 환유적 연상을 통해 기표의 연쇄를 이어가는 계열체적 서술 방식, 혼재된 시점이 만든 큐비즘적 공시성[33]의 문장 구조, 현재와 과거, 과거 속의 회상이 착종[34]되어 나타나는 꼴라주적 서사 공간[35], 그리고 21개의 병치된 장면들이 조립되어 형성한 알레고리적 서사 구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조형예술의 몽타주적 구성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텍스트 생산의 원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여러 층위에서 몽타주적 구성 원리로 방출한 미적 가상의 형식들은 하나 같이 자율적 예술작품의 유기적 구조가 현실이 만든 조야한 사실들에 의해 침투당하고 깨어져 파편화된 상태를 알레고리[36]하고 있는 것이며, 그 심층에는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사물화 현상에 의해 훼손되고 분열된 자아와 영

33) 김미영, 앞의 논문, 401-404면 참조.

34) 정희모, 앞의 논문, 436-441면 참조.

35) 김미영, 앞의 논문, 404-407면 참조.

36) 김홍중, 앞의 책, 199-200면 참조. “벤야민은 알레고리로 표현된 이집트 상형문자의 구성원리가 몽타주임을 확인한다.(…)알레고리는 벤야민의 파편적 글쓰기, 몽타주, 인용의 원리와 소통한다. 그것은 표현을 통한 상실된 기원, 상실된 의미의 확보를 지향하며, 잃어버린 총체성을 사후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베른트 비테, 『발터 벤야민』, 안소현.이영희 옮김(역사비평사, 1994), 167면 참조. 벤야민은 지배적인 연관관계를 파괴하고 존재의 본래적 연관관계를 끄집어 내는 알레고리적 표현의 기능을, “고전적인 예술작품을 부수어 ‘상징의 토르소’로 만드는” 작업으로 은유하였다.

혼의 모습이 멜랑콜리의 병리로 은유되어 있다.

21개 장면이 병치된 몽타주적 구성의 이미지군이 노정하는 바와 같이, 「龍龍會豕」에서 권태와 우울증에 침윤된 주인공의 의식에 비추어진 근대 세계는 의미의 근본 축이 훼손된 어둡고 칙칙한 폐허를 방불케 하며, 이 폐허가 주인공에게 체험될 때 그 속의 사물들은 파편화된 기호인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현상된다.[37] 소설 전반에 계속해서 출몰하는 주인공의 내적 독백은 바로 이러한 세계의 압력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강박적 언술 형식으로 나타나며, 이를 포괄한 상위 구조의 모습이, 시 · 공간적으로 병치된 된 장면의 몽타주가 어지럽게 부유하는 서사적 양태인 셈이다.

하지만 유기적 총체성이 파괴되고 자아가 분열된 상흔을 도상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몽타주는 또한, 그 파괴된 형상의 조각난 장면들을 통하여 근대 사회의 파괴적 힘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가 은폐한 진실을 드러내고 불의의 상황을 각성하게 한다. 이것은 몽타주가 가시적으로 드러낸 분열된 부분들과 파편을 다시 재구성하여 부재했던 의미를 읽어내는, 즉 몽타주적 단자들을 조립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설 세계에서 사회의 불의를 각성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은 무질서하게 병치된 부분들을 조립하고 재구성하기 위하여 우울자의 병리가 표상해 놓은 증후적 장면들 속에 부여할 수 있는 "지각 가능한 질서"[38]를 발견하는 일이다. 논

37) 위의 책, 197면. 이런 의미에서 알레고리와 멜랑콜리는 몽타주적 표현 원리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기능한다고 하겠다. 알레고리와 멜랑콜리를 자신의 미학적 원리로 설정한 시인이 보들레르였다는 것은 이상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8) 프랑코 모레티, 앞의 책, 179면. 프랑코 모레티는 계열체적 서술 방식 혹은 의식의 흐름이나 내적 독백으로 전개되는 현대 모더니즘 소설 속에서 발견되는 신화적 양식의 하부 질서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모더니티의 무질서한 파편들에 지각 가능한 질서를 부여한 방법으로 엘리어트의 『황무지』에서 발견되는 '어부왕 신화'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심층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오딧세이』의 신화적 양식을 예로 들고 있다.

문의 서론에서 연구방법의 틀로 전제했듯이, 「龍龍會豕」를 비롯한 이상 소설의 파편화된 모더니티 속에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지각 가능한 질서'란 바로 '로만스(Romance)적 양식 속에서 펼쳐지는 증후적 기호의 의미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1개로 나뉘어진 몽타주적 장면들은 대부분 상처 입은 주인공의 충격 경험을 담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재현적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 단위는 부분적인 기표로 기능하여 다른 구성 단위인 기억 혹은 경험의 장면들과 은유적 과정이나 환유적 과정에 따라 연쇄되면서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 움직이는 욕망의 기호 활동을 전개한다.

로만스적 탐구 서사에서 아곤(agon), 즉 모험의 발단이 되는 갈등 단계와 상응하는 부분은 4개의 몽타주적 장면(①-②-③-④)들이 논리적 인과성 없이 모여 있는 소설의 서두인데, 주인공이 '거미'라는 영상적 이미지를 시작으로 갈등을 보이면서 반복해서 관념 전이를 벌이((②))는 이유는 '아내의 출분'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회귀((④))와 관련이 있다. 바로 이 아곤(agon) 단계에서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기억의 장면((④))이 기표가 되어 거미라는 알레고리적 기호를 담고 있는 장면((②))과 은유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주인공의 모험이 시작된다.

로만스적 서사 양식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파토스(pathos)'는 본격적인 모험 혹은 탐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인공의 고뇌 어린 투쟁과 파멸, 때로는 죽음을 포함한다. 이 단계는 증상이 만든 관념적 표상이 기호 활동을 벌이며 욕망의 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멜랑콜리 환자의 알레고리적 표상 과정과 상응하며, 「龍龍會豕」에서는 상징계에서 물신적 욕망을 체현하고 있는 여러 속물들과 만나 트라우마의 충격을 재현적으로 경험하는 주인공의 방황과 고난을 통해 나타난다.

소설 속에서 이 과정은 필자에 의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

는데, 전반부의 장면들이 포함하는 주인공의 현실 경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의 장면들로 채워져 있고, 후반부의 장면들은 전반부에서 회상한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현실의 경험으로 채워져 있다. 기호 구조론적 측면에서 조망하면 전반부의 몽타주적 장면(⑤-⑫)들이 중층결정된 기표적 이미지와 후반부의 몽타주적 장면(⑬-⑳)들이 중층결정된 기표적 이미지 간에 교유적(交諭的) 의미의 연쇄 고리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주인공이 환부의 근원을 향해 다가가는 서사의 지도가 그려진다.

'아내의 출분과 귀가(⑥,⑪)', '친구 뫂의 변신과 배신(⑤,⑧,⑨,⑩,⑪,⑫)', 'R 카페 주인에게 아내를 담보로 돈을 빌린 치욕스런 사건(⑥,⑧,⑪)' 등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전반부의 이미지군이 주인공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 바탕이 된 몽타주적 장면을 구성한다면, '뫂'와 상호 착취 관계에 있는 창부 '마유미'를 만나고(⑬,⑭), 마유미와 아내를 비교하고(⑬,⑮), 상품화된 여급들의 생활을 목도하고(⑬), 아내가 양돼지 같은 A 취인점 전무에게 걷어차여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건을 맞닥뜨리고(⑯,⑰,⑱), A 취인점 전무와 뫂와 R 카페 주인이 돈을 매개로 얽힌 물신적 화폐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⑱,⑲,⑳), "세상의 잔인한 관계" 속에서 썩어들어가는 자신을 인지하는(⑳) 후반부의 이미지군은 전반부에 나타난 억압된 기억의 표상들이 환유를 통해 악마적으로 치환된 알레고리적 경험 세계를 창출한다. 이처럼 전반부에서 기억의 장면들이 조립되어 형성한 징후적 이미지가 후반부의 현실적 경험을 통한 알레고리적 세계에서 환유적으로 재생됨으로써 기표와 기표의 연상 과정을 통해 '원초적 장면'을 좇는 몽타주적 서사의 동선은 트라우마의 심리적 심처가 아니라 트라우마의 사회적 콘텍스트를 향하게 되는 것이다.

1)눈물이새금새금맺혀들어왔다.거미—분명히그자신이거미였다.물뿌리처럼야외들어가는아내를빨아먹는거미가너자신인것을깨달아라.내가거미다.비린내나는입이다.아니아내는그럼그에게서아무것도안빨아먹느냐.보렴—이파랗게질린수염자국—퀭한눈—늘씬하게만연되나마나하는형영없는營養을—보아라.아내가아내다.아내아닐수있으랴.거미와거미와거미냐.서로빨아먹느냐.어디로가나.마주야웨는까닭은무엇인가(「竈鼃會豕」, 301면)

2)어떻게하는고하니계집을하나찰자로골라가지고쓱,시계보석을사주었다가도로빼앗아다가끄리고또사주었다가또얼마를벌든지버는대로털거든—살을저며먹이려는데하루에아三四원털기쯤—보석은또여전히사주니까남는것은없어도—여러번사준폭이되고내가거미지,거민줄알면서도—아니야,나는또제요구를안들어주는것은아니니까—(…)그의눈은주기로하여차차몽롱하여들어왔다개개풀린시선이그마유미라는고깃덩어리를부러운듯이살피고있었다.아내—마유미—아내—자꾸말라가는아내—꼬챙이같은아내—그만좀마르지—마유미를좀보려무나(「竈鼃會豕」, 306-307면)

3)그때마유미는그의귀에다대이고속삭인다.(…)이마유미는속는게아니라구요—선생님은아시지요(알고말고)으쨌든그따위끄나풀이한마리있어야삽니다.(…)그래두저런끄나풀을한마리가지는게화장품이나옷감보다는훨씬났습니다.(…)그러니까저를빨아먹는거미를제손으로기르는세음이지요.그렇지만또이허전한것을저끄나풀이다수긋이체워주거니하면아까운생각은커녕즈이가되려거민가싶습니다.(「竈鼃會豕」, 308면)

예문 1)은 과거에 아내를 앞세워 거만한 'R 카페 뚱뚱이 주인'에게 돈 이백 원을 빌린 치욕적인 장면을 회상하고 나서 주인공의 내면에서 떠오른 의식의 내용이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서로를 빨아먹는 거미 관계로 은유되고 있는 자학적 관념 전이를 나타내고 있다. 2)와 3)은 이것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한껏 타락하고 악마화된 형국으로 환치된 장면이다. 거미라는 부정적인 비유에 대한 주체의 자의식이 사라지고 서로가 피를 빠는 거미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자리 잡은 총체적 상호 착취 관계의 현실이 돋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부에서는 독립된 장면으로 반복해서 병치 되었던 친구 '吳'와 'R 카페 주인'의 이미지는 후반부에 가면 아내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린 '양돼지 전무'의 속성과 함께 하나의 몽타주적 구성 장면 속으로 조립되어, 화폐를 매개로 엮여서 무차별화된 세상의 풍경을 희화화한다.

> 경찰서숙직실—이상하다—우선경부보와순사그리고吳R까페뚱뚱이주인그리고과연양돼지같은범인(저건내라도양돼지라고자칫그리기쉬울걸)그리고난로앞에서새파랗게질린채쪼그리고앉아있는새앙쥐만한아내—그는얼빠진사람모양으로이진기한—도저히있을법하지않은컴비네이슌을몇번이고두루살펴보았다.(「寵寵會豕」, 310면)

> 吳와그뚱뚱이주인이그의어깨를건드리며위로한다.「다른사람이아니라우리A취인점전무야.술취한개라니그렇게만알게나그려.자네도알다시피내일망년회에서전무가없으면사장이없는것이상이야.잘화해할수는없나」「화해라니누구를위해서」「친구를위하여」「친구라니」「그럼우리점을위해서」「자네가사장인가」

그때뚱뚱이주인이「그럼당신의아내를위하여」百원씩두번얻어썼다.남은것이百五十원—잘알아들었다.나를위협하는모양이구나.(「龍龍會豕」, 311면)

소설의 말미에서 주인공이 “잔인한 관계를 가지고 담벼락을 뚫고 스며드는”(312면), 화폐의 물신적 마성을 절망적으로 깨달으면서, “산채로 썩어들어가는”(313면) 자신의 모습을 환시하는 것도 교환가치가 덧씌워져 탈인격화[39]되는 죽음 같은 사물화 과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주체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개체의 죽음과 함께 세상이 썩어들어가는 공기의 “쉬적지근”(313면)한 냄새가 “거미의 내음새”(313면)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지폐 내음새”(313면로 체현되는 ‘취각(臭覺)의 메타포’는 분열적으로 상품을 욕망하고, 대체하고, 소비하고, 해체시키고 마는 화폐의 탐욕스런 교환적 물신성을 자기 파멸의 고통 속에서 반복 강박의 기표 연쇄를 통해서 폭로하는 ‘감각의 모더니티’[40]에 다름 아니다. 화폐의 물신성을 기표 이동을 통해 추적하던 주인공은 막다른 골목에서 ‘화폐’와 ‘거미’와 ‘자아’를 등치시킴으로써 ‘썩은 공기’로 감각되는 총체적 물화의 존재 상황을 반동심리 속에서 자학적으로 표출한다.

산채로썩어들어가는그앞에가로놓인아가리딱벌인일월이었다.(…)밤은안개로하여흐릿하다.공기는제대로썩어들어가는지쉬적지근하여.또—과연거미다.(환투)—그는그의손가락을코밑에가져다가가만히맡아보았다.거미내음새는—그러나十원을요모조모주무르던그새큼한지폐내음새가참그윽할뿐이었다.요

39) 위르겐 슈람케, 앞의 책, 124면.
40) 김성수, 앞의 책, 191면.

> 새큼한내음새—요것때문에세상은가만히있지못하고생사람을 더러잡는다.더러가뭐냐.얼마나많이축을내나.가다듬을수없는 어지러운심정이었다.거미—그렇지—거미는나밖에없다.보아 라.지금이거미의끈적근적한촉수가어디로물려가고있나—쪽소 름이끼치고식은땀이내솟기시작이다.(「寵壟會豕」, 313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절망적인 파멸의 지점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악마적 사회의 희생물(Pharmakos)[41]이 됨으로써 진실을 인지하는 로만스적 서사의 피날레, 즉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42]의 구조를 아이러니 양식으로 실천한다. 주인공은 아내가 합의금으로 받아 온 이십 원의 위자료를 주머니에 넣고 '吳'의 "황금알을 낳는 게사니"(306면)인 양돼지 마유미를 찾아가 "패러독스에 의한 복수에 착수"[43]하는 것이다. 바로 이 장면에서 텍스트의 서사는 단속적으로 경련[44]을 일으키고 강박적으로 반복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주인공은 자신을 배신한 '吳'의 물신적 욕망구조를 모방하여 '吳'와 '마유미'의

41) 노드롭 프라이, 앞의 책, 62면-63면 참조. '파르마코스(pharmakos)'는 신화적 양식의 서사에서 '산 제물(祭物)'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희생자이다. 파르마코스는 죄에 물든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불가피하게 죄를 지은 자이지만, 그의 불행이 그가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죄가 없다. 이러한 양가적이고 모순된 성격으로 인하여 파르마코스는 아이러니 양식에 알맞은 인물이기도 하다. 현대소설에서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버림받은 예술가들 속에서 파르마코스적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대는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소"(이상, 「날개」, 앞의 책, 318면.)라는 경구로 상징되는 이상 문학의 운명적 아이러니는 파르마코스적 인물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이고도 부조리한 성격을 대표한다.

42) 위의 책, 297면.

43) 이상, 「童骸」, 앞의 책, 270면.

44) 박찬부, 앞의 책, 113면, 187면 참조. 텍스트가 어떤 부분에서 표현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이해할 수 없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과 애매모호성을 보이는 것은 트라우마의 진실을 반복적으로 재현 표상하는 텍스트의 무의식이 강력하게 발동되는 신호이다. "텍스트가 어떤 강박성을 보이면서 경련하고 있는 것은 텍스트의 얽힘을 푸는 열쇠로 작용한다." 「寵壟會豕」에서 텍스트가 경련을 일으키게 한 '원초적 장면'은 개인의(개체 발생적) 트라우마를 넘어선 것으로서 트라우마의 계통 발생적 이미지를 품고 있는 사회.역사적 콘텍스트를 가리킨다.

타락한 착취 관계를 반복하고, '양돼지 전무'와 아내의 역할을 전도적으로 모방하여 화폐가 만든 관계 구조를 조롱하고, 계단을 구르는 트라우마의 장면을 반복적으로 희화화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본의 부조리한 교환적 악순환을 재현한다.

> 노한촉수—마유미—吳의자신있는계집—그나풀—허전한것—수단은없다.—손에쥐인二十원—마유미—十원은술먹고十원은팁으로주고그래서마유미가응하지않가든예이양돼지라고그래버리지.그래도그만이라면二십원은그냥날라가—헛되다—그러나어떠냐공돈이아니냐—전무는한번더아내를층계에서굴러떨어뜨려주려므나.또二십원이다.十원은술값十원은팁.그래도마유미가응하지않거든양돼지라고그래주고그래도그만이면二十원은그냥뜨는것이다부탁이다.아내야또한번전무귀에대이고양돼지그래라.걷어차이거든두말말고층계에서굴러라.(「寵龍會豕」, 314면)

자신이 경멸하는 대상의 욕망을 모방하여 불의한 자본주의적 교환관계 속에 자신을 던져 넣는 모순되고 역설적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즉 타락한 세계의 형태를, 자신을 훼손시켜 미메시스함으로써 그 세계가 저지른 죄를 폭로하는 방법이야말로[45] 사회적 무기능자로서의 주인공이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46] 역설적 서사 전략이자 자신을 소외시킨 사회에 대한 통렬한 복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寵龍會豕」의 마지막 대목은 텍스트의 심층에서

45) 김정관, 「이상 소설의 사회성과 서사 구성 원리」, 앞의 논문, 61면 참조.
46) 루시앙 골드만,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앞의 책, 14면.

이십여 개의 장면으로 표상된 증후적 기표들이 중층결정된 시대사적 상처의 서사적 몽타주이며, 근대적 물신성에 전염된 훼손된 욕망과 모순적 사회 구조를 알레고리한 변증법적 이미지[47]라고 할 것이다.

4. 타락한 세계에서의 소설적 가치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사물화' 현상이 초래한 가치 붕괴의 사회가 '의미론적 양가성'과 '영혼의 사물화'를 초래하고 서술통합체의 붕괴로 전이되는 현상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물신화된 삶의 방식'과 '사물화된 문학의 표현 형식'과 '훼손된 영혼의 양태'가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의 범주'를 통하여 주체 소외의 인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통찰하게 한다. 교환가치 기호가 만연된 사물화 현상이 의식세계는 물론 무의식의 영역까지 침투하여 영혼과 외부세계가 동시에 타락한, 총체적 가치 위기의 현실에서 소설은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논문에서는 교환가치에 의한 매개와 물신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분열된 근대 세계에서 소설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상 문학의 특수성을 밝히기 위하여, '로만스(Romance)가 전위된 아이러니 양식의 탐구 서사'를 이상 소설의 기본형으로 파악하고, 로만스적 편력의 세 단계(갈등-투쟁-인지 및 소생)에 해당되는 소설의 구성 단위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구조화된 계열체적 서술 방식과 알레고리적 서사 구성의 기능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翟龍會豕」에서 띄어쓰기를 무시한 채, 첫 문장부터 화자와 주인공의 시점이 혼융된 상태에서 단속적으로 연쇄되는 내적 독백은 절망

47) 김홍중, 앞의 책, 359면.

적인 상실감과 권태에 사로잡힌 멜랑콜리(melancholy) 환자의 증후적 언어 양태를 반영한다. 이는 가치 붕괴된 세계로부터 상처받은 존재의 회한이 표상된 고통 어린 투사(投射)로서,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이 파편화된 몽타주적 기호와 '거미'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나타나서 은유 및 환유의 기표 연쇄를 이어가는 언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모더니티가 억압한 초월적 가치들을 찾을 수 없는 우울자가 '부재하는 현존'이라는 역설적 표현 전략으로 사물화가 진행된 대상의 성격을 욕망의 기표 이동을 통해 반복해서 미메시스하는 우회적 탐색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龍龍會豕」는 파편화된 서술 방식 속에 함축된 '기호론적 질서'[48]가 발견된다. '거미'라는 메타포를 대상으로 아내를 훼손시킨 원초적 장면을 확인하려는 주인공의 반복된 욕망 추구는 화폐의 교환원리가 매개된 가치 붕괴의 현실을 표상하려는 텍스트의 무의식과 환유적 아날로지를 형성함으로써, 돈의 흐름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부유하는 상처 입은 기호의 서술 양태를 통해 물화된 세계의 사회적 콘텍스트의 이미지를 변증법적으로 투사한다.

한편 「龍龍會豕」의 서사 구조는 이와 같은 서술적 층위의 표현 원리와 기호론적 연쇄의 탐색 과정을 포괄하면서 환유적으로 반복한다. 기표의 변이 과정을 통해 상실된 대상을 찾아 헤매는 계열체적 서술 형식의 심리 기제와, 몽타주적 장면의 병치와 교유(交喩)를 통해 화폐의 물신성이 침투해 타락해 가는 근대 세계를 표상해 나가는 텍스트의 서사적 구상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龍龍會豕」의 서사를 심층에서 이끄는 재현 표상의 세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투시하면, 계열체적 서술 방식으로 표현된 내적 독백이

48) 본론에서 해석했듯이 이 기호론적 질서를 포괄하는 원형적 구조가 '로만스(Romance)가 전위된 아이러니 양식의 탐구 서사'라고 할 것이다.

나 회상의 증후적 장면들이 몽타주적 구성 단위를 형성하고, 몽타주적 장면의 구성 단위들이 환유적 과정이나 은유적 과정의 기표 연쇄로 조립되어 트라우마의 사회적 의미를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의 무의식을 읽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단위로 분절되고 병치된 몽타주적 기표들의 다발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지각 가능한 질서'가 로만스 양식의 탐구 서사라는 하부구조를 통해 창조된다. 마성적 현실을 경험하는 주인공의 의식이 텍스트의 심층에 반영되어 '합리성을 가장한 근대세계의 비합리성이', 로만스적 양식의 탐구 서사를 아이러니 양식 속에서 전위적(轉位的)으로 재현하는 중층적 구성 방법을 통해 폭로되는 것이다.

「龍龍會豕」를 기호 구조론적 측면에서 조망하면 전반부의 몽타주적 장면들이 중층결정된 기표적 이미지와 후반부의 몽타주적 장면들이 중층결정된 기표적 이미지 간에 교유적(交諭的) 의미의 연쇄 고리가 나타나며, 후반부의 이미지군은 전반부에 나타난 상처받은 기억의 표상들이 환유를 통해 악마적으로 치환된 타락한 경험 세계를 창출한다. 전반부에서 기억의 장면들이 조립되어 형성한 징후적 이미지가 기표로 작용하여 후반부의 현실적 경험을 통한 알레고리적 세계에서 생생하게 재현됨으로써 기표와 기표의 연상 과정을 통해 '원초적 장면'을 추적하는 몽타주적 서사의 동선은 트라우마의 사회적 콘텍스트를 향하게 되는 것이다.

「龍龍會豕」는 특히 결말에서 소설적 진실을 현현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파멸의 지점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악마적 사회의 희생물(Pharmakos)이 됨으로써 진실을 인지하는 로만스적 서사의 피날레, 즉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의 구조'를 아이러니 양식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龍龍會豕」의 주인공은 자신이 경멸하는 타락한 대상의 욕망을 모방하여 불의한 자본주의적 교환관계 속에 자신을

던져 넣는 모순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세계가 저지른 죄를 폭로하는 역설적 방법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서사의 결말을 이끌어 낸다. “그대는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소”[49]로 대표되는 이상 문학의 패러독스는 ‘부재하는 현존’의 방법으로 진실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낳은 미적 모더니티, 혹은 ‘상처 입은 기호의 서사’를 함축한다.

49) 이상, 「날개」, 앞의 책, 318면.

[ABSTRACT]

The Sociology of Pathological sign
— A Study on the Descriptive Form and Narrative Structure in Lee Sang's「Ji-Joo-Whoe-Shi(翅鼄會豕)」

Kim, Jung-kwan(Chung-ang University)

This thesis put purpose on enunciating the distinctiveness LeeSang's literuture which has created the novelistic value in the modern world corrupted and devided because of the phenomenon of the mediation and fetishism by the exchangeable value. For this, at first, it figures out the research-narration of the irony mode that the romance is displaced as the basic form of the LeeSang's novel. In the second place, it analyzes and estimates the function and value of the paradigmatic description and allegorical narrative composition structuralyzed in the works centering around the constituent unit of the novel which is correspondent to the agon-pathos-anagnorisis of the romantic errantry.

The symptomatic expression sign and paradigmatic description of the metaphorical-metonymic chain which appear in the allegorical form in「Ji-Joo-Whoe-Shi(翅鼄會豕)」, mean the response-strategy of the aesthetic modernity to reveal the repressed and hidden truth paradoxically by being's reification governing the moder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Ji-Joo-Whoe-

Shi(龜龝會豕)」has included and repeated the expression principle of the descriptive dimension like that and the research-progress of the chain of signifiant. The constituent unit of the montage-scenes is assembled into chain of the signifiant of the metonymic or metaphorical progress and revealed the social context of the trauma into the allegorical image. The recognizable schema which this chain of the signifiant in montage makes to be overdeterminated as a regular unit, is created through the under-foundation named the research-narration of the romance mode.

「Ji-Joo-Whoe-Shi(龜龝會豕)」per se is the narrative allegory of the periodic trauma that about twenty symptomatic scenes are overdeterminated. It is also the dialectic image of the damaged desire and the contradictory social structure that are infeted by modern fetishism.

Key words: Exchange Value, Romance mode, Allegory, Paradigmatic description, Montage

[참고문헌]

□ 기본자료

이상,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4.

____,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3』, 문학사상사, 1995.

□ 단행본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2008.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민음사, 2010.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3.

박찬부, 『현대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선 옮김, 문예출판사, 1994.

베른트 비테, 『발터 벤야민』, 안소현 · 이영희 옮김, 역사비평사, 1994.

프랑코 모레티, 『근대의 서사시』,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1.

허버트 마르쿠제, 『에로스와 문명』, 김인환 옮김, 나남, 1989.

위르겐 슈람케, 『현대소설의 이론』, 원당희 · 박병화 옮김, 문예출판사, 1995.

루시앙 골드만, 『현대사회와 문화창작』, 천희상 옮김, 기린문화사, 1982.

_____,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옮김, 청하, 1984.

노드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옮김, 한길사, 1982.

페터 지마, 『텍스트사회학이란 무엇인가』, 허창운 · 김태환 옮김, 아르케, 2001.

□ 논문

김대웅, 「이상 소설 '지주회시(蜘蛛會豕)'에 나타난 자본의 문제」, 『어문론총』 제8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163-187면.

김미영, 「이상의 지주회시 연구」, 『인문논총』제65집, 인문학연구원, 2011, 385-418면.

김성수, 「이상 문학에 나타난 화폐 물신성과 감각의 모더니티」, 『국제어문』 제46집, 국제어문학회, 2009, 191-220면.

김정관, 「이상 소설의 사회성과 서사 구성의 원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45-73면.

_____, 「김승옥 소설 '서울의 달빛 0장'의 심리기제와 미적 모더니티 연구」, 『인문과학』 제63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281-320면.

박선영, 「알레고리로 읽는 이상 소설」, 『이상리뷰』 제4호, 이상문학회, 2005, 141-172면.

송민호, 「이상 문학에 나타난 '화폐'와 글쓰기」, 『한국학보』 제28권 제2호 통권 107호, 일지사, 2002, 132-167면.

이정석, 「이상 문학의 세계감」, 『반교문학회』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347-461면.

이재복, 「이상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된 창부의 몸과 근대성의 메타포」, 『이상리뷰』 제2호, 이상문학회, 2003, 113-141면.

정희모, 「'지주회시'에 대한 敍事構造的 分析 硏究」, 국어교육』 제92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433-54면

채호석, 「1930년대 소설에서의 돈와 육체」, 『현대문학의 연구』 제3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125-51면.

접수일: 2020.12. 04 총평일: 2020.12. 21 게재확정일: 2020.12. 26